

자료제공일 : 2015. 4. 9.(목)

이 보도 자료는 2015년 4월 15일 06: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보도자료

- ▷첨부자료 : 1매
- ▷사진자료 : 2매
- ▷자료매수 : 3매

담당부서	재난안전과	
과 장	신 동 명	3423-6930
팀 장	심 덕 보	3423-6941
담 당	김 태 정	3423-6946

#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, 불나면 어디로 대피하나?

- ‘대피공간’ 이나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발코니 ‘경량칸막이’ , 1992년 이전 허가받은 아파트엔 없어
- 피난시설(대피공간, 경량칸막이 등) 없는 아파트가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56%(67,847세대)를 차지
- 강남구,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대비 및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‘아파트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’ 수립 추진 및 중앙부처의 대책마련 촉구

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(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)가 있었지만, 이를 알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**아파트에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**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.

피난시설 중 경량칸막이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 시행된 1992년 10월 이후 허가 받은 아파트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. 이후 2005년 이후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, 2008년 하향식피난구가 추가되었다. 다시 말해서 1992년 10월 이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라면 **피난시설 중 ▲ 대피공간 ▲ 경량칸막이 ▲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다.**

아파트는 그 구조상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,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세대별 독립성이 오히려 거주자들의 피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따라서 아파트는 **화재 발생시 안전한 피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(피난시설)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.**

그렇다면, 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‘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’는 과연 얼마나 될까? 강남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%에 해당하는 67,847세대가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.

그러나,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와 관련한 대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.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03월 제작·배포한 ‘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안전 가이드’를 살펴보자.

가이드에는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,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요령과 평소 관리방법 등을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. 그러나, 이보다 중요한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.

국민의 생명보호 및 화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. 강남구(구청장 신연희)는 이렇듯 화재안전 대책이 전무한 ‘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’의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,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대비 및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 자체 제작과 교육·홍보 등을 포함한 ‘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안전 개선 추진 계획’을 수립,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.

구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 스스로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▲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▲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화재발생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평소에 물건 등을 쌓아 두지 않게 관리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.

구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<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>를 선정하여 종합적이고,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3개 분야는 ▲ 화재안전 개선 체계 구축 ▲ 주민 관심유도 ▲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.

화재안전 개선 체계 구축을 위해 ▲ 화재안전 개선 T/F팀 구성·운영 ▲ 중앙부처 차원의 안전대책 수립 요청 ▲ 사각지대 없는 ‘화재안전 가이드’ 자체 수립,

**구민 관심유도를 위해 ▲ 관내 아파트 전세대에 화재안전 스티커 제작·배포 ▲ 화재안전 안내문 배포 ▲ 화재안전 홍보 동영상 제작·활용 ▲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작성·배포,**

**체계적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▲ 각종 교육, 회의시 화재안전 교육 병행 실시 ▲ 화재 안전훈련 실시(강남소방서 업무협약 체결) ▲ 다양한 매체 활용 지속 홍보를 추진한다.**

신연희 강남구청장은 “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해지고 있지만,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.” 며,

“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**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**” 고 전했다.